

청소년 비행 설명에 있어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과 통제 : 수정된 두 이론의 검증

이 성 식* · 전 신 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일상 생활영역이 어떻게 비행과 연관되는지에 관해 그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그것을 역할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에 긴장이론대로 역할정체성 관련 역할에서의 긴장이 비행을 유발하는지, 통제이론대로 그 역할정체성 관련 유대가 비행을 통제하는지의 두 이론을 새로운 접근에서 검증하고 그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한다. 서울시 중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 학업,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요인들과 그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부모유대 손실인지와 그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와 친구유대 손실인지와 친구와의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을 제시했다. 비록 부모와의 유대의 경우는 역할정체성 논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했지만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연구결과가 긴장이론보다는 통제이론의 논의를 더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 주제어 : 비행, 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 역할정체성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I. 서론

청소년비행은 사회문제 중 주요 이슈의 하나이고,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그 원인을 찾으려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청소년비행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청소년의 생활환경이자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 요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선애, 2007; 이철, 2009; 이성식, 2011).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비행에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행이론으로는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두 이론은 모두 청소년의 주위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다룬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긴장이론이 비행유발적 요인을 다룬다면 통제이론은 비행통제적 요인을 다루는 점에 차이가 있어, 긴장이론에서는 부모,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긴장이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보지만(Agnew, 1992), 통제이론에서는 부모, 학교, 친구와 맺는 사회유대가 비행발생을 막는 통제요인이 된다고 본다(Hirschi, 1969).

이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영역에서의 경험에서 오는 가정,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긴장과 유대가 비행의 원인이 되는지 두 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역할정체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과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려고 한다. 우리는 많은 역할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체성들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 학교에서는 학생, 친구들의 친구, 동아리 회원, 종교인 등등이 그러한 역할정체성들이다. 그런데 자아를 구성하는 역할정체성은 순위가 있어 모든 역할정체성이 중요하지는 않고 개인마다 중요시하는 역할정체성이 다르다(Stryker, 1980; Thoits, 1991). 따라서 그러한 역할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충격도 개인마다 다를 것인데, 예컨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은 그 부정적 영향이 커서 비행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행을 통제하는 사회유대의 역할에서도 그것은 개인의 역할정체성별로 다를 수 있다. 누군가가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것이 역할정체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부모와 맺는 유대는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그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유대가 과연 비행을 통제할지 그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아로서 역할정체성의 개념은 여러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아직 청소년비행 영역에 적용된 적은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가정, 학교, 친구 요인을 비행에 적용하고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다룸에 있어 그것을 역할정체성과 관련하여 다루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며,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수정한 논의로서 긴장이론과 통제이론 중에서는 과연 어느 이론이 더 타당한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두 수정된 이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세운 후 서울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비행에서의 긴장이론과 통제이론

청소년비행의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은 대표적 이론으로 꼽힌다. 긴장이론가들은 원래 Merton의 논의에서처럼 하층의 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적 여건에서의 긴장에 주목했다. 하지만 경험연구에서 지지를 못받자 이후에는 청소년들 누구나 가정, 학교,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Agnew, 1984), 그 이후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으로 그 논의를 체계화하면서 기존 긴장이론 및 사회 통제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과 통합하려는 통합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통합적 논의(긴장은 사회유대가 낮고 비행학습이 높은 여건에서 비행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외에 그 중심적 내용 중 하나가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교생활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긴장이나 소외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야기함으로써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후 긴장이론의 검증에서 그 통합적 논의는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Hoffman and Miller, 1998), 일상영역에서의 긴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여, 부모와의 갈등과 긴장은 비행에 주요 요인이 되고(Hay, 2003), 가정 및 학교에서의 일상긴장이 비행에 주요

원인이 되며(Agnew, 2001; 이순래, 이경상, 2010), 아울러 학업부적응이외에도 친구와의 긴장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했다(Agnew and Brezina, 1997; 이성식, 2006; 황성현, 2012).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은 긴장이론과 그 기본 가정을 달리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누구나 비행 및 범죄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대신 개인의 비행여부는 이러한 비행동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통제기제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를 인습적이라 보았고, 가정, 학교, 친구를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인습사회의 일부 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와 유대(애착, 관여, 참여, 신념)가 강할 경우 비행동기가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고, 결국 사회와의 유대 약화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즉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일부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가 낮은 청소년들은 사회유대의 약화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애착이 낮을 때 비행을 저지르고, 학교공부예의 관여가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Hirschi, 1969; Wiatrowski et al., 1981). 그 중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고(Cernkovich and Giordano, 1987; Rankin and Wells, 1990; 김준호, 김선애, 1996), 학교공부예의 관여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Cernkovich and Giordano, 1992; 이성식, 1994; 김상원, 2007).

2.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과 통제와 청소년비행

역할정체성은 자아에 관한 이론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구조적 상호작용이론가들에 따르면 자아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봄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구조의 위치와 연관되는 다양한 역할들과 관련된다고 보았다(McCall and Simmons, 1978; Stryker, 1980). 그러한 점에서 사람들은 다수의 역할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수의 역할정체성을 갖고 자아는 그러한 역할들의 정체성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청소년으로 보면 누구의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누구의 친구로서, 어떤 지역사회 성원 혹은 모임의

회원으로, 교인으로서 등등의 다양한 다수의 역할정체성들을 가지며 그러한 정체성들로 자아가 구성된다.

일부 역할정체성 이론가들은 모든 역할정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특정 역할은 다른 역할보다 자아를 구성함에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처럼 역할정체성은 그 중요도에 따라 층화, 순위지워져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체성의 층화 순위(identity salience hierarch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tryker, 1980).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순위에 상관없이 어떤 역할에의 관여도를 통해 접근하기도 했는데(Stryker and Serpe, 1982), 예를 들어 어떤 역할에 대한 내재적 혹은 애정적 관여도이외에 그 역할로 얻게 된 주위의 네트워크와 외재적, 상호적 관여도를 통해 정체성을 다루기도 했다. 또한 역할정체성의 상대적 층화와 순위보다는 역할-개인 통합(role-person merger)(Turner, 1978; Callero, 1992)처럼 특정 역할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해 역할정체성을 다룬 입장도 있다.

긴장이론은 가정, 학교, 친구 등의 역할영역의 요인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일면 역할정체성 논의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역할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상의 역할영역에서의 긴장이 개인에게 스트레스, 더 나아가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역할정체성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역할에 의미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역할에서 긴장이 있다고 그것이 행동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Thoits, 1991, 1992). 그대신 역할정체성 순위에서 높은 혹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긴장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부정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긴장이론가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영역인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을 비행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할영역의 긴장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들마다 역할정체성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역할정체성 순위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중요한 역할영역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서 긴장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부정적 감정을 낳고 비행으로 폭발할 수 있다. 즉 역할정체성이론가들의 주장대로 모든 역할에서가 아니라 역할정체성 관련 역할에서의 긴장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존 긴장이론의 논의는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통제이론에서도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요인이 비행에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유대요인들이 누구에게나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의 유대 역시 역할정체성 관련 유대가 비행을 잘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는 Hirschi의 2004년도 자신의 자기통제의 수정된 개념에서 제시된다. Hirschi는 그가 Gottfredson과 함께 제시했던 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서의 자기통제 개념이 자신들도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도 지나치게 개인의 안정된 성향위주로, 예컨대 충동성, 위험추구성, 이기성, 단순작업선호성, 육체선호성, 화기질로 정의되고 측정되어 연구되어졌다고 자성하면서, 사실 낮은 자기통제력이란 순간의 이득을 위해 특정행위(비행)에 따르는 모든 손실을 고려치 않는 경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즉 행위결과에 관심을 두면서 기존 자기통제 개념을 보완하고 동시에 사회유대를 포함하는 개념화에 있어 행위결과로서 유대손실 측면에 주목했다. 즉 이 개념에서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으로 결과될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주위와의 관계를 생각지 않은 경향이라고 보았다. 사실 Hirschi는 1969년과 달리 1986년 논의에서도 부모와의 애착과 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우연한 비행기회의 상황하에 있다 하더라도 비행시 예상되는 부모의 부정적 반응이 내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고 그러한 내적, 합리적 사고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주장들은 국내 연구(이성식, 1995; 2011)에서도 검증되었는데, Hirschi도 2004년도에 그러한 주위 유대를 생각하는 내적 능력이 자기통제력이라고 보면서 자기통제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은 긴밀히 연관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자기통제의 개념화에 있어서 Hirschi(2004)는 역할정체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통제작용을 하는 일상영역은 개인별로 중요도가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역할정체성 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즉 부모, 교사, 친구 등 주위와의 유대는 개인별로 중요시하는 정도가 달라 모두가 통제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영역에서의 그 주위 사람, 예컨대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비행시 결과될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을 생각하는 내적 능력이 비행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후 연구에서 Piquero와

Bouffard(2007)는 Hirschi의 재개념화된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서의 손실인지로서의 자기통제가 비행에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은 모두 역할정체성 관련 논의로 재개념화하여 수정되어 논의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 학교, 친구관계의 역할영역은 개인마다 중요시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고 그러한 역할정체성 관련 역할영역에서의 긴장이 바로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중요시하는 역할영역에서의 비행으로 결과될 손실과 우려에 대한 생각이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기존의 검증과는 다르게 새롭게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과 유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논의들에 기초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긴장이론에 따르면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이 비행을 유발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긴장, 학업에서의 긴장, 친구와의 긴장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함에 있어 기존 긴장이론대로라면 부모와의 긴장, 학업에서의 긴장, 친구와의 긴장이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1-1: 부모와의 긴장은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긴장이론)

가설 1-2: 학교에서의 학업긴장은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긴장이론)

가설 1-3: 친구와의 긴장은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긴장이론)

그러나 새로운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이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서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이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역할정체성 논의중 부모, 학업, 친구와의 관계가 각각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역할-개인 통합 혹은 역할중요도를 통해 접근하기로 하는데, 새로운 논의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도와 부모와의 긴장, 학업의 중요성과 학업에서의 긴장, 그리고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친구와의 긴장간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높을 때 긴장과 비행의 관계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 2-1: 부모와의 역할중요도와 부모긴장과의 비행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이론)

가설 2-2: 학업의 역할중요도와 학업긴장과의 비행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이론)

가설 2-3: 친구와의 역할중요도와 친구긴장과의 비행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역할정체성 관련 긴장이론)

하지만 통제이론에서 보면 부모, 학교, 친구와의 사회유대는 비행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애착을 중심으로 다룸에 있어 기존 애착, 예컨대 부모, 교사, 친구와의 애정, 대화, 동일시정도보다는 새로운 2004년 Hirschi의 자기통제 논의에 입각하여 비행으로 결과될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의 내적 작용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3-1: 부모와의 손실인지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제이론)

가설 3-2: 선생과의 손실인지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제이론)

가설 3-3: 친구와의 손실인지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제이론)

그런데 역할정체성과 관련하여 볼 때 통제이론에 따르면 어떤 역할에서 역할정체성 순위가 높거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행을 막을 수 있는 통제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긴장이론에서는 열망이 높고 현실기대가 낮아 그 격차가 클수록 긴장과 절망이 높아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어떤 역할에 대한 열망과 중요도가 높아 역할정체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비행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보지만, Hirschi가 1969년에 주장했듯이 어느 영역에 열망이 높다는 것은 역할에 관여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따라서 어떤 역할에서 역할정체성이 높거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행을 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통제이론에 따르면 부모, 학업, 친구관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중요도는 그 자체가 독립변인으로서 각각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 4-1: 부모와의 관계 중요도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제이론)

가설 4-2: 학교학업 중요도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제이론)

가설 4-3: 친구와의 관계 중요도는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통제이론)

더구나 새로운 역할정체성 관련 통제이론의 입장이나 앞서 논의한대로 최근의 새로운 접근의 자기통제이론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역할에서의 유대 혹은 유대손실이 비행에 있어 주요 통제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비행으로 결과될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의 영향력을 다루기로 하는데 그 영향력은 가설 3-1부터 가설 3-3까지의 통제론적 논의대로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역할중요도가 높을 때 그 통제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할정체성 관련 통제이론대로라면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도와 부모손실인지, 교사와의 관계 중요도와 교사손실인지, 그리고 친구관계의 중요도와 친구손실인지 각각의 상호작용효과가 비행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교사와의 관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이 없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학교학업의 중요도를 대신 사용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1: 부모와의 역할중요도와 부모손실인지의 비행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역할정체성 관련 통제이론)

가설 5-2: 학업중요도와 교사손실인지의 비행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역할정체성 관련 통제이론)

가설 5-3: 친구와의 역할중요도와 친구손실인지의 비행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역할정체성 관련 통제이론)

2. 측정

이 연구에서 다룰 주요 요인들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가정, 학교, 친구요인으로 먼저 긴장이론의 요인들은 Agnew와 White(1992)에 기초하여 부모와의 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많다”,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한다”의 세 문항을($\alpha=.892$), 학교에서의 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 못한다”, “나는 학교가기가 싫다”, “나는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의 세 문항을($\alpha=.693$), 친구와의 긴장은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편이다”의 세 문항($\alpha=.949$)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역할정체성 변인으로는 Stryker의 역할정체성 순위보다는 어떤 역할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한 Turner(1978)의 역할-개인 통합 논의에 근거, 부모와의 관계, 학교학업,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각각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의 역할 중요도로 질문하였는데, 각각의 질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통제이론에서의 주요 요인으로 여기서는 기존 애착보다는 부모,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는데(이성식, 1995), 비행행목들을 제시한 후 “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면 나에게 실망하실까봐 망설이게 된다”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교사, 친구와의 손실 등을 한 문항씩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으로 비행은 흡연, 음주, 미성년자 출입불가장소의 출입

의 세 가지 지위비행이외에 절도, 강도, 폭행, 성희롱, 강간, 성관계, 약물사용 등 재산, 폭력, 성, 약물비행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기로 하며 이들 열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여 ‘없다’는 0으로, ‘있다’는 1로 코딩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들 열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사회배경변인으로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계층변인으로 가족의 수입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 이하’에서부터 100만원 간격으로 ‘901만원 이상’에 이르는 열 개의 응답항목을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재학중인 남녀 중학생이다. 이전 비행연구는 주로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본 조사에서 중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는 연령이 다소 저연령화되고 또한 여자청소년의 비행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일곱 개 남녀공학 중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1,2,3학년 한 학급씩을 선정하기로 하며, 선정된 학급에서 학급학생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08년도 7월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718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1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처리를하기로 하는데, 통계분석은 조사대상자 특성 및 주요 변인들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변인에서 평균값을 차감한 후 두 변인을 곱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주요 요인들의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364명으로 50.9%를, 여학생이 336명으로 47.0%를 차지해 성별분포는 남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4세가 257명(3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15세로 196명(27.4%), 13세가 191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과 관련하여 한 달 평균 가족수입을 살펴보면 가족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164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24명(17.3%), 400만원대가 101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은 3-15범위에서 7.418로 그 점수가 낮았으며, 학교에서의 긴장은 7.448, 친구와의 긴장은 5.178로 그 점수가 매우 낮아, 긴장점수들은 전체적으로 낮게 제시되었다. 역할정체성을 위한 역할중요도를 보면 부모와의 역할중요도가 1-5점 범위에서 평균값이 3.997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학업의 중요도는 3.35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친구와의 관계 중요도는 3.826으로 제시되었다. 사회통제이론에서의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로 부모, 교사, 친구손실을 각각 살펴본 결과는 부모손실인지가 3.887로 가장 높았고, 교사손실인지가 3.839, 친구손실인지가 3.783이었다. 종속변인인 비행의 경우는 0-10범위에서 평균값이 .893으로 매우 낮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명	%
성		
남성	364	50.9
여성	336	47.0
무응답	15	2.1
연령		
12세	58	8.1
13세	191	26.7
14세	257	35.9
15세	196	27.4
16세	13	1.8
가족수입		
100만이하	32	4.2
101-200만	89	12.8
201-300만	164	22.9
301-400만	124	17.3
401-500만	101	14.1
501-600만	34	4.8
601-700만	21	3.4
701-800만	9	1.4
801-900만	9	1.4
901만이상	37	5.3
무응답	96	13.4
총	715	100.0

〈표 2〉 주요 요인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모긴장	7.418	3.261	3-15
학업긴장	7.448	2.889	3-15
친구긴장	5.178	2.520	3-15
부모중요	3.997	1.057	1-5
학업중요	3.351	1.243	1-5
친구중요	3.826	1.304	1-5
부모손실인지	3.887	1.241	1-5
교사손실인지	3.839	1.254	1-5
친구손실인지	3.783	1.271	1-5
비행	.893	1.471	0-10

2.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가설들의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으로 우선 긴장이론 관련 가설의 검증결과를 보면 <표 3>에서부터 제시된다. 여기서는 가정, 학교, 친구 관련 긴장과 중요도 변인들이 함께 사용되고 또한 상호작용효과도 고려되는 점에서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표 3>에서는 긴장요인들의 영향을 제시하는데, 부모와의 긴장, 학업긴장, 친구와의 긴장 중에서 부모와의 긴장이 비행에 $p<.001$ 수준에서 매우 높게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을 지지했다. 하지만 나머지 학교 및 친구긴장요인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결과에서는 긴장요인들 이외에 역할중요도와 긴장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부모긴장이나 학업긴장, 친구긴장 모두 역할중요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이 정(+)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라고 예측한 역할정체성 관련 가설 2-1부터 2-3까지의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배경변인들로는 가족수입이 $p<.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해 가족수입이 많은 가정의 청소년이 더 비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긴장요인들과 역할중요도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남성	.215	.009
연령	-.065	-.043
가족수입	.087**	.129
부모긴장	.065***	.144
학업긴장	-.001	-.019
친구긴장	.007	.012
부모중요	-.125*	-.090
학업중요	-.081	-.069
친구중요	.034	.030
부모긴장*부모중요	-.012	-.032
학업긴장*학업중요	-.008	-.024
친구긴장*친구중요	.015	.034
R제곱	.053	
F값	2.688**	

*= $p<.05$; **= $p<.01$; ***= $p<.001$

<표 4>에서는 통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사회통제이론의 애착요인들의 검증 결과를 보면 비행시 예상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가 독립적으로 비행에 $p<.05$ 수준에 부(-)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 3-1을 지지했다. 하지만 교사손실과 친구손실인지는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3-2와 가설 3-3은 지지하지 못했다.

한편 역할중요도 중에서는 부모와의 역할의 중요도가 $p<.05$ 수준에서 부(-)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즉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안한다는 것으로, 이는 가설 4-1의 통제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학업과 친구관계의 중요도는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4-2와 가설 4-3은 지지되지 못했다.

<표 4> 사회손실인지 요인들과 역할중요도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b	β
남성	.278	.011
연령	-.083	-.055
가족수입	.067*	.100
부모손실인지	-.344*	.093
교사손실인지	.253	.051
친구손실인지	-.041	-.036
부모중요	-.128*	-.092
학업중요	-.040	-.035
친구중요	.041	.036
부모손실*부모중요	.093*	.094
교사손실*학업중요	-.030	-.036
친구손실*친구중요	-.084*	-.104
F제곱	.064	
F값	3.304***	

*= $p<.05$; **= $p<.01$; ***= $p<.001$

역할정체성 관련 통제이론의 가설을 위해 부모손실인지와 부모와의 관계의 역할 중요도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p<.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 5-1과는 정반대의 부호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즉 이 결과는 부모의 역할정체성이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부모손실인지도와 비행이 부(-)적 관계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런데 친구손실인지와 친구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는 $p<.05$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해 앞서 부모의 경우와는 반대로 가설 5-3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친구의 경우는 본 연구의 역할정체성 논의를 지지했다. 교사손실인지와 학업중요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5-2를 지지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그 결과를 보면 앞서의 표에서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요인이 중요해 부모와의 긴장과 비행시 예상되는 부모와의 손실인지가 모두 유의미해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함께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앞서 결과에서와 달리 부모중요도가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학업 및 친구긴장, 그리고 교사 및 친구손실인지와 학업 및 친구중요도가 유의미하지 않아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했다.

<표 5> 긴장 및 사회손실인지 요인들과 역할중요도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b	β
남성	.271	.011
연령	-.076	-.050
가족수입	.083**	.124
부모긴장	.069***	.154
학업긴장	-.002	-.070
친구긴장	.007	.012
부모손실인지	-.328*	.111
교사손실인지	.224	.050
친구손실인지	-.045	-.039
부모중요	-.105	-.075
학업중요	-.054	-.046
친구중요	.045	.040
부모긴장*부모중요	-.030	-.079
학업긴장*학업중요	-.008	-.025
친구긴장*친구중요	.022	.050
부모손실*부모중요	.120**	.121
교사손실*학업중요	-.006	-.007
친구손실*친구중요	-.080*	-.098
R제곱	.092	
F값	3,211***	

*=<.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주목했던 역할정체성 관련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들을 보면 앞서 결과에서처럼 긴장요인들과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새로운 긴장이론의 논의는 지지하지 못했으나 사회유대 손실인지들 중에서는 친구손실인지가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 < .05$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해 부분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역할정체성관련 통제이론의 논의를 지지했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손실인지와 부모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했고 교사손실의 경우 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일상 생활영역이 어떻게 비행과 연관되는지에 관해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다룸에 있어 그것을 역할정체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접근하려고 했으며, 여러 가설들을 제시하고 검증해 보았다. 부모, 학업,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요인들과 그 역할중요도간의, 그리고 부모, 교사, 친구와의 사회유대 손실인지와 그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긴장요인들과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새롭게 접근한 긴장이론의 논의는 지지하지 못했으나 사회유대 손실인지들 중 부모손실인지 및 친구손실인지와 역할중요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작용해 통제이론의 논의를 더 지지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그 상호작용효과는 부모손실인지와 친구손실인지의 경우가 그 부호가 반대여서, 친구와의 손실인지는 그 역할정체성이 높을 때 비행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통제작용이 역할정체성과 관련하여 나타난다는 역할정체성 논의를 지지했지만, 부모의 경우는 역할정체성 논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했다. 부모의 경우는 부모와의 역할중요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부모손실인지가 높을 때 비행을 통제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에서 보면 사회유대와 비행이 부(-)적 관계이며, 부모손실인

지가 낮을 때 사회통제의 약화로 비행을 더 지지르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중요도가 가설 4-1에서와 같이 또 다른 비행통제요인이라고 한다면 상호작용효과가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은 그 역할중요도마저 낮을 때 더 큰 통제의 약화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부모와 역할정체성이 낮은 비행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부모손실인지와 내적 자기통제가 낮을 때 비행을 더 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앞서 친구의 경우의 상호작용효과의 부(-)적 부호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모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이는 일면 비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결과에서 볼 때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중요도의 비행에 대한 그 영향력의 부호가 정(+)적인 것은 그것을 잘 나타낸다. 즉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비행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비행으로 결과될 손실마저 적게 느낄 경우 통제의 약화로 비행을 더 지지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상호작용 영향력은 $p < .05$ 수준이어서 부모의 $p < .01$ 수준의 경우보다 다소 약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역할정체성이 높을 때 사회유대 손실인지가 비행에 통제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정체성도 낮고 사회유대 손실인지도 낮은 청소년이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긴장이론의 논의도 지지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할정체성 논의는 대체로 지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주위와의 유대 중에서도 부모와의 유대가 중요해 사회통제이론의 논의를 지지했고 이는 국내에서 꾸준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는데(김상원, 2007; 이성식, 2004, 2011), 부모와의 관계가 비행에 있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나타내주는 결과임을 확인했다. 부모와의 유대가 그 요인으로 중요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 그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부모와의 유대의 경우 비록 새로운 역할정체성 논의를 지지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독립적 영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상호작용효과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손실인지도 적고 또 부모와의 역할정체성도 낮은 사회통제가 부족한 청소년이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해 전반적으

로 볼 때 사회통제이론이 부정되기보다는 그 논의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긴장이나 학업긴장, 친구긴장이 역할정체성과 관련하여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비록 긴장이론에서 역할정체성 논의는 지지되지 못했지만 부모와의 긴장의 경우 그 자체로 $p < .001$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역시 우리나라에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설명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역할정체성 긴장가설이 지지되지 못했던 것은 어느 역할에서 역할정체성이 높은 것은 긴장이론대로 비행유발의 요건이 아니라 사회통제이론의 주장대로 그 자체가 비행통제의 요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예측한 역할정체성 논의의 지지도는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앞서 해석에서처럼 반드시 그 논의가 지지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할정체성 순위 개념 대신에 자료의 한계로 각각의 역할에서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그러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긴장과 통제요인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복잡성을 우려해 좀 더 간결하게 논의하고자 긴장이론과 통제이론과의 논쟁에만 주목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상원 (2007). 아동과 청소년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2): 325-362.
- 김선애 (2007). 가정, 학교, 친구 관련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101-126.
- 김준호, 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25: 109-141.
- 이성식 (1994). 구조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통한 청소년비행의 원인고찰, 한국청소년연구 17: 43-70.
- 이성식 (1995).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24: 183-204.
- 이성식 (200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종단적 패널 연구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7(3): 5-33.
- 이성식 (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정, 학교, 친구요인과 그 심리적 매개요인들의 작용, 형사정책 23(2): 121-142.
- 이순래, 이경상 (2010).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5-32.
- 이철 (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3): 237-257.
- 황성현 (2012). 청소년 흡연 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23-42.
- Agnew, R. (1984). Goal achievement and delinquenc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8: 437-51.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gnew, R. & White, H.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99.
- Agnew, R. & Brezina, T. (1997). Relational problems with peers, gender and

-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9(1): 84-111.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319-61.
- Callero, P.L. (1992). The meaning of self-in role. *Social Forces* 71:485-501.
- Cernkovich, S.A. & Giordano, P.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2.
- Cernkovich, S.A. & Giordano, P.C.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261-291.
-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y, C. (2003). Family strain, gender, and delinquency, *Sociological Perspectives* 46(1): 107-35.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Free Press.
- Hirschi, T. (1986). On the compatibility of rational choice and social Control theories of crime. In *The Reasoning Criminals: Rational Choice Perspective on Offending*. D.B. Cornish & R.V. Clarke(eds.). New York: Springer-Verlag.
- Hirschi, T. (2004). Self-control and crime. In R.F. Baumeister & K.D. Vohs(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Hoffman, J. & Miller, A. (1998). A latent variable analysis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83-111.
- McCall, G.J. & Simmons, J.L. (1978). *Identities and Interactions*. Free Press.
- Piquero, N.L. & Bouffard, J.A. (2007). Something old, something new: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Hirshi's redefined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4(1): 1-27.
- Rankin, J.H. & Wells, L.E. (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140-165.

- Stryker, S. (1980). *Symbolic Interactionism: A Social Structural Version*.
Benjamon/Cummings.
- Stryker, S. and R.T. Serpe. (1982). Commitment, identity salience and role behavior.
in W. Ickles and E. Knowles(eds.). *Personality, Roles and Social Behavior*.
Springer-Verlag.
- Thoits, P.A. (1991). On merging identity theory and stress research.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101-112.
- Thoits, P.A. (1992). Identity structur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236-256.
- Turner, R.H. (1978). The role and the per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23.
- Wiatrowski, M.D., Griswold, D.B. & Roberts, M.K.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25-41.

Role Identity-related Strain and Control in Delinquency : Testing the Revised Theories

Lee, Seong-Sik*

Jun Shin-Hyun**

This study tests a revised version of strain and control theory. According to strain theory, strain in each family, school, peer can be expected to increase delinquency when it is related to its role identity, and according to control theory, the expected cost of social bond in each role-identity area can reduce delinquency. This study tests the relative efficacy of two theories. Using data from surveying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expected cost of their relationship with peers and its role salience is negatively significant, whil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trains in each in family, school, peer and each role salience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expected cost of parents and its role-identity is also appeared, but it is founded that delinquency is high when both its cost and role-identity are low by showing the positive interaction effect. Nevertheles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se results seem to support partially a new version of social control.

❖ Key words : delinquency, strain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role-identity

투고일: 12월 8일 / 심사(수정)일: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12월 20일

*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 Department of Youth Studies,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